

제9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말씀 묵상 그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비난과 비웃음 그리고 박해로 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상의 비웃음과 박해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비난과 비웃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15)

1) ()

성도의 삶에 ‘마음과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공간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단의 장난에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니라”

(잠언 16:32)

실제로 가롯 유다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2)

→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을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1-5)

→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한창이던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를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걸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사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감사’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15)

2. ()이 풍성하게 하라!!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16)

1) (_____)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그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서 1:5-7)

→ 그들의 지도자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골로새교회 성도들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 (_____)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말씀이 그들 안에 내주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늘 살아 있게 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늘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3)

→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진리의 말씀이 한번 내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1-2)

3) (_____)를 부르며
말씀이 살아 있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15)

→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와 ‘항상’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항상 살아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4) (_____)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풍성함, 그로 인한 권면과 가르침, 그리고 찬양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은 늘 ‘감사’로 결론지어집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감사가 없는 말씀이나 찬양은 성도의 삶에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7)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은 바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3. ()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예수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17)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하고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10)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6)

→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권하거나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1) (_____) 감사하라!!

주께서 명하신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17)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20)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결단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감사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